



가, 가  
가

가

가

6, 9

2).

가 가 가

1984, 1984, 1984, 1985), 『 ( 1981, 1983, 『 (1998), 『 (1997), 『 (1990), 『 (1999)』 (2002), 『 (郡誌)

## 2.

3).

가

가 . < >, < >, < >, < >, < >

>, < >, < > > , < >, < >

> 4) .

---

2) , “ ”, 1

3) 『 , 2002, 58 . 『 22, , 674 .

4) MBC, 『 , .





가

가

8).

, 가

가

가

9).

### 1) 남성 화자의 민요

10)

가

가

가

가

< >

가

가

8) , , 102 .

9) 가

가

10) ( 10 40 , 1990, 102 . ) 가



큰 애기 젓탕이는 몽싱몽실

잘하고 잘하네

에헤야 산이가 잘하네

<중략>

얼까산이나

얼까산이나

산이가 산이지

얼까산이야

여보시오

얼까산이야

농군님네

얼까산이야

- 금산 <논매는 소리> -

바람불고 비올 줄 알면

어느 여자가 빨래갈까

저 건너 검정구름이 둥글둥글 모이네 에

저 건너 비에서

얼까산이야

비가 들어온다

얼까산이야

- 논산 <논매는 소리> -

< > “ / ”  
가 ,  
가

가  
“ , ” “ ” ‘ㄹ’  
가 .

< >  
가 .11) ‘ , ‘ , ’

‘ , , , , ‘ , ‘ ,  
가 .

11) “ “, 『 』 , 1992, 92

가

< > < >

이 논배미 모를 심어 장입이 훤히 영화로구나  
담송담송 닷마지기 반달만치 남아나 있네  
방실방실 웃는 이 저 임은 못 안아 보고서 해가 지네  
네가 무슨 반달이더냐 우리 님이 반달이로세  
- 금산 <모심는 소리> -

여보시오 농부님네 / 어렵단 말씀 마시구서  
향산 기러기 날라간 제로 / 이 배미서 열심히 올러를 가세  
이팔시절 젊은 몸이 / 평생토록 농부백이 못하는가  
세상살이 살고 보면 / 다 일반이로다  
- 공주 <논매는 소리> -

청춘에 하늘은 잔빌도 많안데 / 우리네 살림은 기박도 하셔서  
아침 밥만 먹으면 / 호미자락 집어 쥐고서  
들판에 나가 땅만 파고 세월을 보내네  
원제원제 돈 벌어 가지고 / 남들과 같이 살어나  
이랬다 저랬다 한탄을 말고 / 우리 농사에 심들 쓰자  
태평양 같이 넓은 논이 / 반달만큼 남았구나  
- 아산 <논매는 소리> -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  
가

가

가

< >

이 터를 닦아보세 / 부귀공명 분명쿠나  
자손 나면 득남하고/ 자손 나면 부귀하고  
삼봉산 밑에 집을 짓고 / 자손만대 살아보세  
아들 낳으면 효자 낳고 / 여자 낳으면 총녀로다  
이 터를 닦게 되면 / 삼년 안에 부귀득이요  
좌견천리 입견 만리 / 명성 높은 터를 닦세  
- 서산 <집터 다지는 소리> -

가

가

가

가

가

2) 여성 화자의 민요

가

가 가

가 가

가가 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바람은 솔솔 부는 날 / 옥황님께 죄를 짓고 / 하신 일이 전혀 없어  
구름은 둥실 뜨는 날 / 인간으로 귀양와서/ 금사 한필 짜자하고  
월궁에 노든 선녀 / 좌우산천 둘러 보니 / 월궁으로 치치 달아  
- 서천 <베들가> -

가 , 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“

<

>

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/ 이삼세 골 거듬 매니  
 다른 점심 다나와도 / 이내 점심 아니나와  
 점심 바래 내가 왔네 / 그것새나 일이라고  
 때를 타고 시를 타나 / 에라 요년 물러서라  
 밥이라고 주는 것은 / 삼년 묵은 보리 찬밥  
 굽이굽이 사발굽이 붙여주네  
 반찬이라 주는 것은 / 된장찌개 접시굽이 붙여주네  
 - 부여 <시집살이 노래> -

가

가

가

가

시집은 지 사흘 만에 / 광단 치마 벗어 놓고 / 행주치마 둘러치고  
 장주문을 열떠리고 / 대청마루 떼구르고 / 부엌으로 나리 달아  
 큰 솥 밥을 열어보니 / 청동녹이 앉았데나 / 광방문을 열떠리고  
 쌀독이라 열어 보니 / 암거미 줄 서렸데나  
 < 종 략 >

선 보리는 제쳐 놓고 / 익은 보리 잘라다가 / 삼세번은 볶아 놓고  
 쓴 고사리 제쳐 놓고 / 단고사리 꺾어다가 / 끓는 물에 솟구쳐서  
 수탉 같은 시아버지 / 암탉 같은 시어머니 / 벌레 같은 시아주머님”  
 - 청양군 <시집살이 노래> -

형님 형님 사춘 형님 / 시집살이 어떻든가  
 시집살이 말도 말게 / 고추 당추 맵다한들 /시집보다 더 매우리  
 시아버님 호랑갈구 / 시어머님 수다쟁이  
 남편이라 곰걸구 / 시동생은 미련탱이 / 여우같은 시누이가  
 - 대전 <시집살이 노래> -

“ , ” . 가 가  
 .  
 가 가 가 가  
 가 , 가 가 가  
 가 가  
 가 “ ” .  
 , 가 , , 가  
 .  
 가 , .  
 가  
 “ , , ” .  
 .  
 , “ ”  
 ,  
 ,  
 가 ,  
 , ,  
 ,  
 가 ,

12).

한양 가서 사 오신 댕기를 / 두 냥 주고 접어다가  
성안에서 그네를 타다 / 성 밖으로 잊었으니  
열두 살 먹은 이 도령아 / 내 댕기 주었거든 나를 다오  
< 중 략 >

열두 폭 병풍은 네게 지고 / 열두 폭 치마는 내가 입고  
너와 나와 단둘이서 / 결혼을 한다면야 너를 주마  
영 글렀구나 영 글렀어 / 가마타고 시집가보기는 영 글렀어  
- 연기 <댕기 노래> -

천 길 같은 입을 보랏구 / 만길 같은 담을 넘다  
도포자락 찢었으니 / 부모가 알면 어이 하리  
초당에서 글 읽던 처녀 / 문고리 잡구 하는 말이  
대장부 남자로서 / 그 말 한마디 대답 못해  
- 홍성 <댕기 노래> -

가

가

가 가

가 가

가

가

12) 가 < 가 > < >

가  
가

4.

가

가

가

가





5.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가

【       】

- , 「 가 - < 가> 」 -, 『       』, 1983.
- , 「       」, 『       』, 1998.
- , 『       』, 1984.
- 「       」, 『       』 - 『       』, 2002.
- 『       』, 1961.
- 『       』 1,2,3,4,5,6,       , 1981.
- , 『       』 4 7 :       ,       , 1993.
- , 「 가 」, 『       』 7,8       , 1975.
- . 『       』,       , 1992.
- , 『       』,       , 1992.
- , 『       』,       , 1994.
- MBC, 『       』,       , 1995.